

신안 자은도 시간당 108mm...광주·전남 역대 2번째

7일 광주·전남지역에 기록적인 비가 내리면서 역대 시간당 최고 강수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은 신안군 자은도로 새벽 4~5시 1시간 동안 108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이 기록은 자동기상관측소(AWS)인 이곳의 기상 통계는 공식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998년 7월 31일 순천에서 기록한 145mm였다. 광주에서도 이날 오전 7~8시 1시간 동안 최대 강수량 70

mm를 보여 이 지역에서는 4번째로 많은 양을 기록했다. 광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지난해 8월 8일 86.5mm가 기상관측 이래 1위에 올랐으며, 1997년 8월 4일 70.3mm, 1975년 7월 26일 70.1mm를 기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황토빛 들녘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화정동의 논이 황토색 빛물로 가득 차 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 곳곳의 논밭이 갈라져 쏠아진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지하차도 침수 광주시 광산구 송정지하차도가 7일 오전 빗물에 잠기면서 차량 3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광산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빗물을 빼고 있다.



닭 집단폐사 7일 폭우로 닭 5만5천여마리가 집단폐사한 나주시 남평면 우산리의 한 양계농가 주인이 빗물에 잠긴 채 죽어있는 닭들을 들춰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청별관 해법 이번주 윤곽

10인 대책위 국회 토론회...추진단·5월 단체 막판 중재

구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가 TV공개 토론회 등 사실상 지역 사회 여론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해법 도출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그동안 10인 대책위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의 합의안인 '5월의 문'(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 입구를 만드는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반면,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이의 수용을 거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인 '구 도청 별관 논란의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시민의 뜻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공식활동 마감시간(15일)을 8일 앞둔 '10인 대책위'는 7일 국회에서 별관 해법도출에 대한 대책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는 10인 대책위가 당초 일정으로 정한 5월 단체, 시민사회 여론수렴, TV공개 토론회 등이 마무리된 때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박광대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등 10인 위원회 전원이 참석했다.

10인 위원들은 이날 합의로 활동마감 시한인 15일까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더 진행할 것인지, 최종 결론을 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의 문' 등 지금까지 도출된 대안을 각각 평가하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인 대책위는 모임을 끝낸 뒤 브리핑에서 "추진단과 5월 단체를 상대로 조정노력을 거쳐 이번 주내 10인회동을 재개기로 했다"며 "차기 회동에서는 별관 해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5월의 문' 안의 수용을 추진단에 권고하는 안, 독자적인 중재안 도출, 여론 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밤 11시30분부터 7일 새벽 1시까지 광주KBS 공개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 변경 가능인가를 주제로 방송 3사 합동토론회가 열렸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토론회에는 5·18단체가 추천한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 위원장, 신광선 건축가, 강찬석 건축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천한 김호동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추진단 전담기획과장, 유규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 박흥근 건축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5월의 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광주의 12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3차례 회의 끝에 '5월의 문'과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광주MBC에서 5.18단체와 문광부 관계자의 참여로 열린 1차 합동토론회와 같이 참석자들은 시민단체의 절충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안국은 각각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책사업'과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사적지'라는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었다. 김호동 추진단 전담기획과장은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고 별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 충분히 인식했다"며 "설계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고려할 수 있으나 이미 진행된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검찰 '광주·전남 인맥 몰락' 가시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검찰 내 '광주·전남 인맥'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의 대규모 승진인사에서도 광주·전남 인사는 단 두 명밖에 그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의 '인맥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 4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해 고검장 9석이 전부 교체되는 것은 물론, 검사장 승진 인사도 최대 20명까지 폭이 넓어져 18기까지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고검장 대목 '몰락'이 광주·전남 출신 단 한 명=천 후보자의 1기수 선배인 이준보 대구 고검장(연수원 11기·강진)이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출사퇴가 예상된다. 특히 이 고검장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 광주·전남 인맥을 이끌어온 명동성 법무연수원장(10기·강진), 문성우 대검차장(11기·광주), 이귀남 법무부 차관(12기·장흥) 등이 조직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사법시험 선배는 물론, 동기까지 옷을 벗는 검찰 관례에 따라 사퇴가 불가피한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귀남 차관 등 천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까지 검찰을 떠날 결심을 굳힌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고검장급 자리 9석이 전부 비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고검장 승진군으로는 연수원 13기(9명)를 중심으로 14기(13명)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기 중에는 황희철(광주) 서울 남부지검장을 비롯, 박영렬(경기) 광주지검장, 한상대(서울) 법무부 검찰국장, 차동민(경기) 수원지검장, 조근호(부산) 서울북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14기에서는 노환균(경북) 대검 공안부장, 김진태(경남) 대검 형사부장, 안창호(대전) 대전지검장, 김영한(경북) 청주지검장, 채동욱(서울) 법무부 법무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검사장 최대 20명까지 승진=고검장 승진에서 밀린 일부 인사가 사퇴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검사장 승진폭은 15명선에서 많게는 2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기를 주축으로 하되 이미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됐던 16기 일부에 다시 기회를 주는 한편, 18기 2~3명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많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인사는 임권수(16기·화순)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 유일하다. 16기에서는 임 지청장을 비롯, 조영근(경북) 법무부 인권국장, 임정혁(서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이경재(대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황운성(전북)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거론된다. 17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김희관(전북) 2차장검사와 최재경(경남) 3차장검사, 김경수(경남) 인천지검 1차장검사, 송찬엽(전북) 서울서부지검 차장, 강경필(제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세평에 오르고 있다. 검사장 승진에 18기까지 포함된다면 김주현(서울) 법무부 대변인과 오세인(강원) 대검 공안기획관, 강찬우(경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오광수(전북)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이 불망에 오르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고객 감사 세일"

● 밀착 광주-MBC 문화관광 상품1000-226-6070으로 본인 방문을 확인하십시오. (예약금과결제금제외)

무안 ↔ 연길 직항(무안 공항 주차장 무료 이용) 7/25, 7/28, 8/1, 8/4, 8/8 (단, 5회 한정)

구분	항로	일정	출발시간	선박(기종)
A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799,000
			8/4, 8/8	₩ 7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799,000
			8/4, 8/8	₩ 799,000
B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849,000
			8/4, 8/8	₩ 84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849,000
			8/4, 8/8	₩ 849,000
C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949,000
			8/4, 8/8	₩ 94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949,000
			8/4, 8/8	₩ 949,000
D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1,099,000
			8/4, 8/8	₩ 1,0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1,099,000
			8/4, 8/8	₩ 1,099,000
E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1,299,000
			8/4, 8/8	₩ 1,2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1,299,000
			8/4, 8/8	₩ 1,299,000
F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5, 8/1	₩ 1,399,000
			8/4, 8/8	₩ 1,399,000
	무안-연길(복합)항공	도보 4명	7/28, 8/1	₩ 1,399,000
			8/4, 8/8	₩ 1,399,000

※ 예약금: 100,000원, 결제금: 900,000원 (항공료 포함) / * 예약금: 100,000원, 결제금: 900,000원 (항공료 포함) / * 예약금: 100,000원, 결제금: 900,000원 (항공료 포함)